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유엔 업무 이야기

- **이름** : 전현수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개발계획(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커뮤니케이션 부서
- **직위/직급** : 지식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애널리스트(Knowledg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Analyst)
- **지원경로** : UNV 청년봉사단 4기 및 컨설턴트
- **근무기간** : 2019.07. - 2022.03.

나는 대학생 시절 네팔로 해외봉사활동 갔던 경험을 시작으로 국제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국제지역학과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다. 스웨덴에서 석사 공부를 하던 중 한 학기를 의무 인턴십으로 보내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학교 커리큘럼에는 개발도상국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학부 졸업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인턴십으로 세네갈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나는 문득 이번엔 아시아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유네스코 국가 사무소에 인턴십을 지원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유네스코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부서(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Unit)가 하고 있는 일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 몇 개 월 후에 운이 좋게 유네스코 방콕 지역 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2015년 8월 인턴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유엔 일에 발을 디뎠다.

유엔개발계획,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팀

UNDP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약자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총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국제 개발 전반에 혼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개발 연구, 지식 공유 (knowledge sharing) 등을 제시하고 있다. 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의 경우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18개국 UNDP 국가 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다. 이스탄불에 오기 전 나는 2017년과 2018년 사이 한국 정부 지원 유엔 청년봉사단으로 UNDP 코소보 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내가 일하였던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팀은 UNDP의 주요 정책팀 중 하나다.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팀은 국가 사무소의 요청을 받아 국가사무소가 프로젝트를 수립, 전략,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시에 젠더 주류화 정책(gender mainstreaming)이라는 전략을 통해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무소는 국가 사무소와 본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공유되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 데이터 등을 지식경영이라는 일련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활발하게 쌍방향으로 전달한다. 특정 젠더 이슈나 국제 여성의 날과 같은 주요 국제 기념일에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옹호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지식경영과 커뮤니케이션

당시 팀에서 나의 직함은 지식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애널리스트(Knowledg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Analyst)로 지식경영 및 관리와 정책 옹호 활동을 담당했다. 업무의 특성상UNDP(유엔개발계획) 안에 다른 정책팀들과 본부, 국가 사무소의 젠더 담당자들, 그리고 18개 국가 사무소 안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팀과 협업이 필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직화 기술과 대인 기술 그리고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매달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주요 성기반 폭력,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기업가정신, 여성 운동 등 대한 소식을 모아 뉴스레터의 형식으로 매주 UNDP(유엔개발계획) 내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주제로 Equal Future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주제는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꽤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다.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 다섯 명을 인터뷰하였고 그들의 각국의 정치 상황과 앞으로의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담은 스토리를 작성하여 플랫폼에 기재했다. 스토리와 더불어 세계 57개국의 지난 27년간의 여성의 정치 참여 변화(각 국가 국회의 여성 정치인 비율 및 각국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여성 정치 참여 사건들)를 조사하여 데이터로 시각화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리서치, 데이터 시각화 등을 진행했다. 당시 UNDP(유엔개발계획) 이스탄불 지역사무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팀의 팀원이 이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COVID-19 그리고 성평등: 성 기반 폭력과 업무환경의 변화

성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1]은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정폭력이 코로나 전과 비교하여 65%가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성평등 관련 이슈를 다양한 테마로 분류하여 18개 국가 사무소에서 공유하는 지식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가이드와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 코로나 이후 성 기반 폭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사무소들과 함께 유엔과 유럽연합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Spotlight Initiative에 투여하는 업무의 양도 꽤나 늘었다. 나는 국가 사무소에서 Spotlight Initiative 웹사이트에 기재하고자 하는 기사나 언론 홍보 자료들을 수정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했다.

1) 성기반 폭력 혹은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은 흔히 말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성(Gender) 인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빚어지는 폭력이다. GBV가 반드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없지만 여성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폭력이 있는 차별 구조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하고 여성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을 방향성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조금 지나서 팀에서는 18개국 국가 사무소의 젠더(Gender) 담당자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시작했다. 적지 않은 수의 18개국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표와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로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개발되어 있는 지표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 팀에서는 때로는 이런 지표를 국가 사무소의 데이터에 기반해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업무를 하느라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재택근무로 하루 종일 집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

코로나 이후 업무를 하는 방식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미팅 등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나도 일을 하던 중에 UNV 계약이 끝나게 되어 IPSA라는 새로운 UNDP 컨설턴트 계약으로 다시 같은 팀과 일을 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이스탄불에서 하던 일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단지 국가만 바뀌었다. 늘 현장에서만 유엔 업무를 했던 나에게는 한국에서 하는 유엔 업무는 정말 새로웠고 다르게 다가왔다. 모국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지만 6시간의 시차는 때로는 나의 한국 생활과 생체 호르몬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팀은 이탈리아, 인도, 한국, 네덜란드,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 일하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상컨대 아마 모두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러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코로나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다.

협업의 효과와 창의성의 적용

UNDP 지역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이니셔티브와 작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다는 것이다. 가끔 유엔의 관료주의와 행정체계의 느린 부분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UNDP가 가지고 있는 국제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장점으로 받아들여 젠더 이슈를 접목하여 내가 혹은 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술적인 역량을 활용하면 만족스러운 업무성과를 낳기도 한다.

나는 유엔이 옹호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특히 그중에서도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캠페인 활동을 매년 기획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16일간의 성 기반 폭력 대응 관련 캠페인, 국제 여성의 날, 여성들의 STEM 분야 참여 향상 국제기념일을 홍보하는 업무가 있었다. 매년 캠페인 관련 핵심 주제는 주어지지만 그 지역이나 국가의 맥락적인 부분은 스스로 유동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발전시키고 적용시키면서 다양한 디자인 툴을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일은 나의 유엔 업무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부분이었다.

코소보에서의 1년 4개월

나는 코소보에서 한국 정부 지원 유엔 청년봉사단으로 1년 4개월을 보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국제 개발에 대한 어렴풋한 환상과 공부를 현장에 적용시키고 싶은 부푼 꿈을 가지고 바로 시작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코소보라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다. 이곳에 가기 전까지 나는 코소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생활 도중에 스토킹, 성추행, 절도를 경험하기도 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동료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힘을 주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아직까지도 유엔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유엔 업무에 대한 계획과 목표

업무를 제외하고 내가 보냈던 4년의 유엔 생활은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수를 적응해 나가면서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기회에는 물론 코로나의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유엔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전적인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연성과 건강함을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유엔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배워온 것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발해 나갈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이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국가를 정해 두진 않았지만 세계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은 아직 그대로 있다. 그동안 그 다짐을 바탕으로 스스로는 꽤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나의 지식경영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성을 잘 쌓아 나가고 싶다.